싹수 분석으로 프로그램 합성 보조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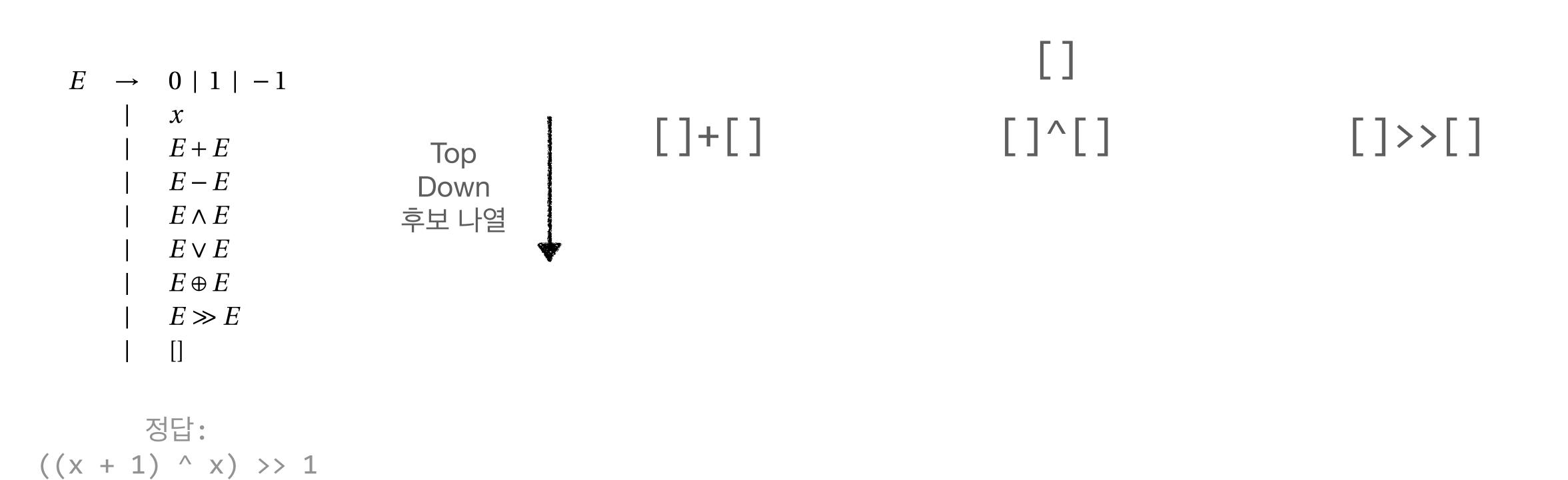
싹수 분석의 효율 끌어올리기

으

- 배경
- 합성 잘하기 -> 부품 빨리 늘리기
 - 합성이 더 잘 됨 (경험적)
 - 싹수 분석 성공의 효과 큼
- 분석 잘하기 -> 중간 결과 재활용으로 싹수 분석 효율 높이기
 - 후보에 구멍이 많아야 재활용 효과 큼
- 희망은 어디에?
 - 부품 빨리 늘리기 <> 구멍 많은 후보 만들기

배경

양방향 합성





0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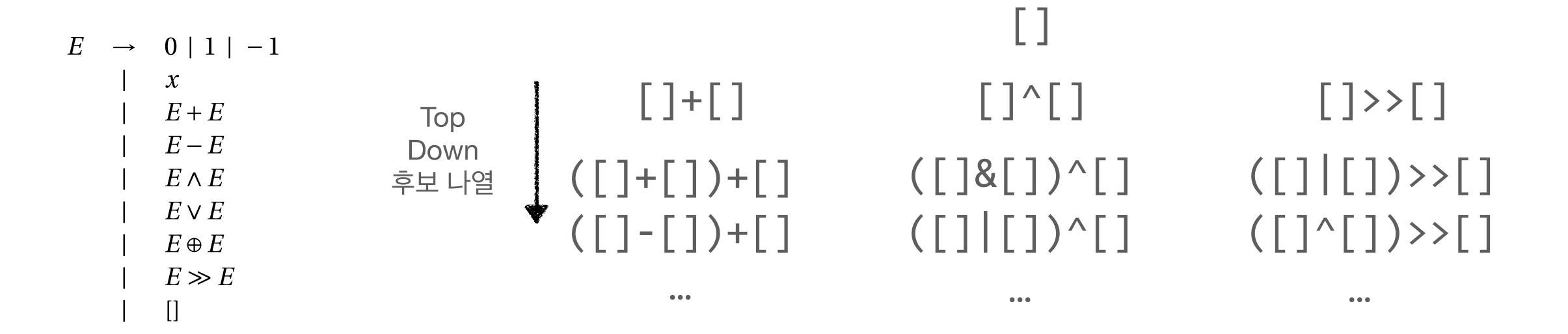
-1

X

양방향 합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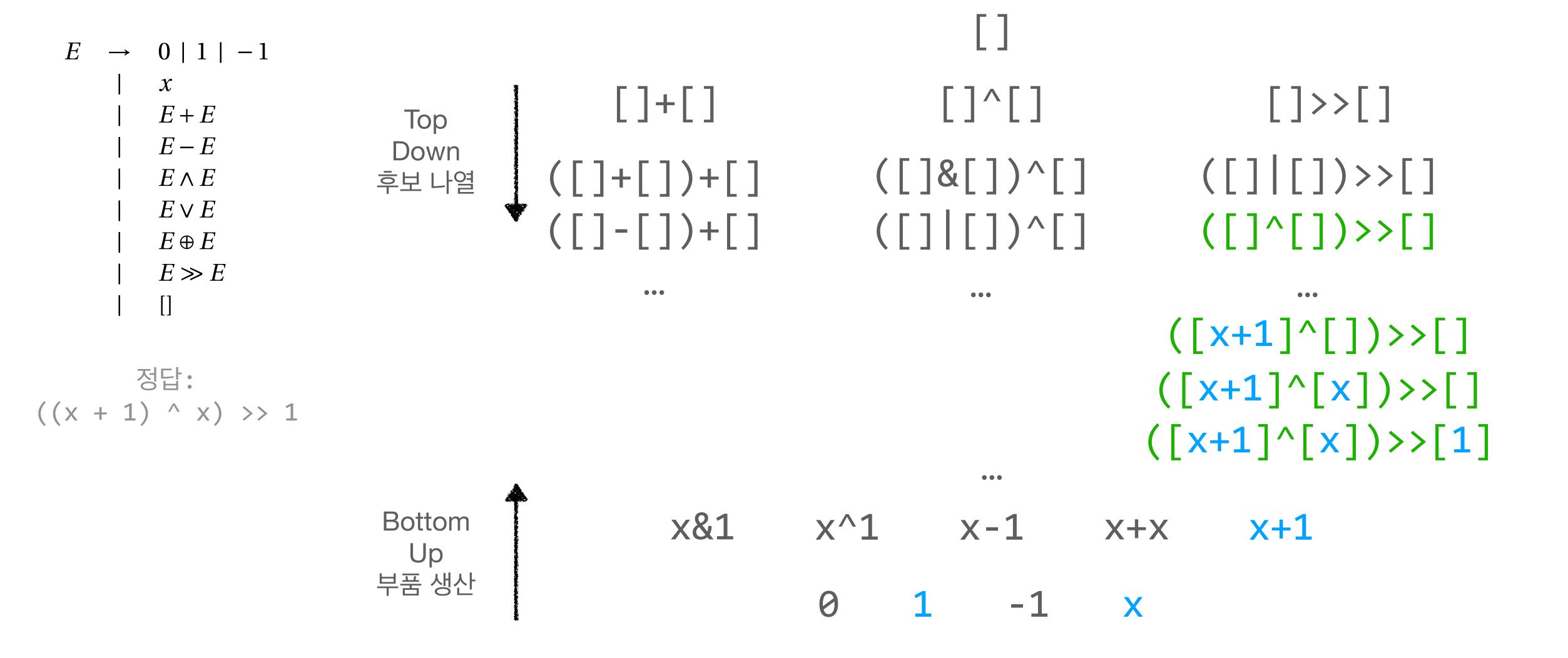
정답:

 $((x + 1) ^ x) >> 1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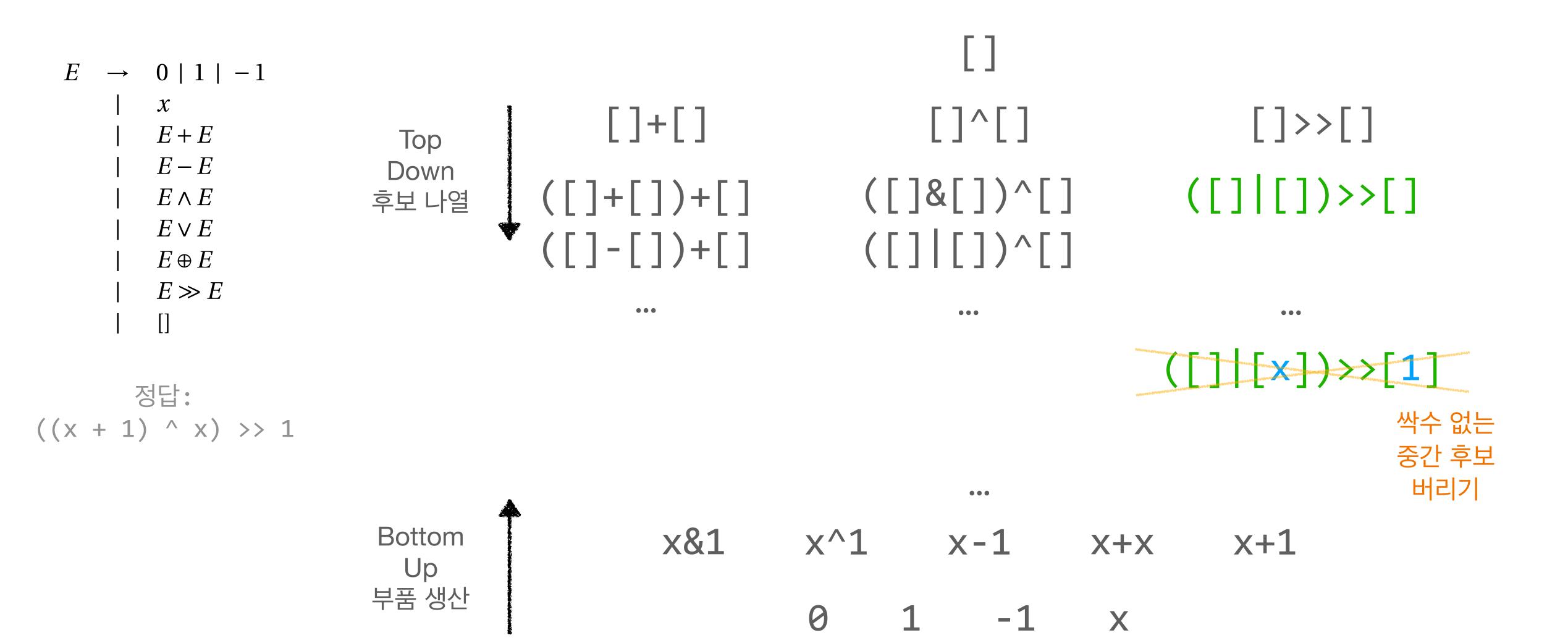




양방향 합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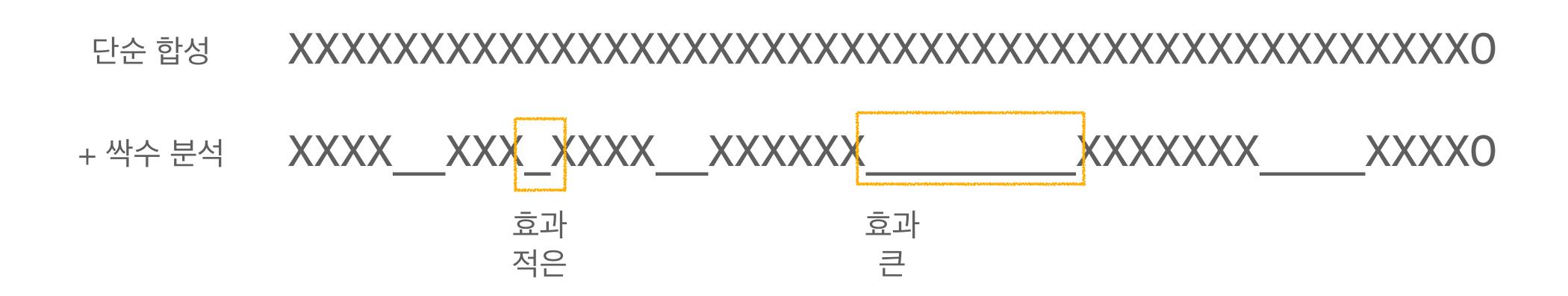


양방향합성 + 싹수 분석



싹수 분석의 역할

- 합성 중 만들어보는 후보의 "순서"는 보존 => 합성 최종 결과는 같다
- 합성 중 불필요하게 만들어보는(싹수 없는) 후보를 건너뛸 뿐
 - 남은 빈칸과 전체 부품 많을 때 효과 큼 (부품 수 * 빈칸 수)



주요 측정 대상

- 합성 성능
 - [가장 중요!] 합성 시간
 - 만든 부품 수 (~ 부품의 최대 크기)
 - 만든 중간 후보 수 (~ 중간 후보의 최대 빈칸 수) & 만든 모든 후보 수

- 분석 효율
 - 분석 시간
 - 분석으로 덜 만들게 된 후보 수

합성잘하기

합성 자체를 충분히 잘 해야 분석도 가치 있음

• 싹수 분석은 합성 중 불필요한 삽질을 덜어줄 뿐

- 해야할 삽질이 지나치게 많으면
 - 합성 성능이 나쁨

- 쓸데없이 삽질을 많이 하면서 그 삽질을 많이 줄여 싹수 분석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면
 - 기만

양방향 합성 알고리즘

<입출력 기반 합성기>

입력: 입출력 쌍

출력: 합성해본 프로그램

1. 부품 세트를 만든다

2. 후보 세트를 만든다

3. 후보 하나를 고른다(싹수 분석 시도)

3-1. 각 빈칸마다 가능한 모든 부품을 하나씩 끼워본다 (끼울 때마다 싹수 분석 시도)

3-1-1. 빈칸을 다 채우면 입출력 쌍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만족하면 출력

4. 후보가 다 떨어지면

4-1. 부품을 키우거나

4-2. 후보를 늘리고

반복한다.

<반례 기반 합성기>

입력: 합성 조건

출력: 합성한 최종 프로그램



합성 조건에서 최초 입출력 쌍을 꺼낸다.

- 1. <입출력 기반 합성기>에 최초 입출력 쌍을 던진다
- 2. 출력 결과가 합성 조건에 맞는지 Solver에 물어본다
 - 2-1. 맞으면 최종 정답
 - 2-2. 틀리면 Solver가 반례를 돌려준다.
 - 이 반례를 입출력 쌍에 더하고 반복한다.

경험: 부품을 빨리 키우는게 유리한 경향

component size	hd-09-d5	hd-13-d5	hd-14-d5	hd-15-d1	
1	231.1	157.2	27.8	469.3	
2	29178.6	81.1	2978.3	218284.1	
3	106.1	94.8	24.5	105.7	
4	531.4	0.7	2902.3	899.6	
5	1.3	33.4	2.6	9.5	

^{*} hacker's delight 문제, 싹수 분석 없는 양방향 합성, 부품 최대 크기는 한 번 만들어 고정하고 후보만 늘리는 방식, 편차는 찾아낸 정답 식의 차이와 생성되는 반례의 차이 등 때문

경험: 부품을 빨리 키우는게 유리한 경향

• 합성 자체의 성능에도 유리함

- 싹수 분석의 효율에도 유리함
 - 빈칸이 하나뿐인 후보라 해도 부품 수가 10배 차이나면 효과도 10배 차이

• 메모리가 넘치지 않는다면 어느 선까진 빨리 키워두는게 좋다

• 부품 키우기와 후보 키우기를 어느 시점에 하는게 좋은지 판단 필요 (더 많은 경험)

재활용으로 싹수 분석 효율 높이기

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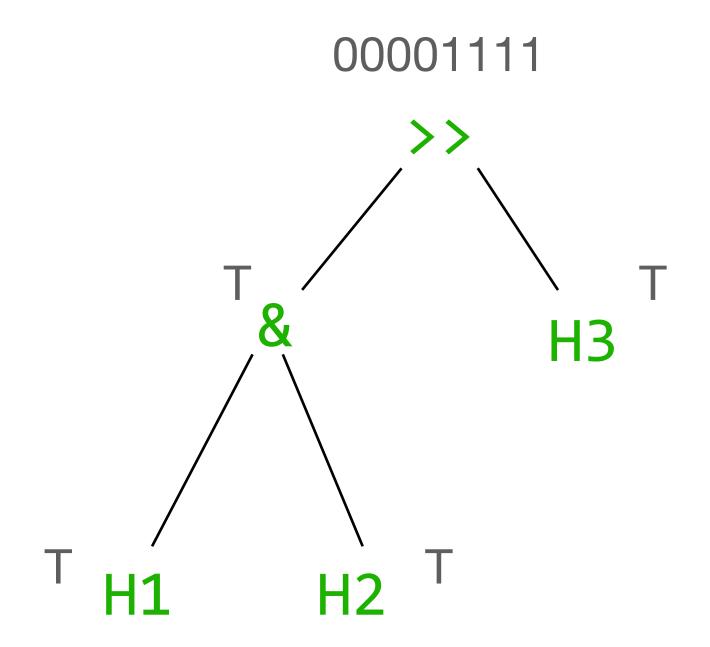
• 큰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싹수 분석을 반복함

- 특히 빈칸만 더 채운 프로그램이라면?
 - 안전한 분석을 설계했다면 빈칸을 채운 프로그램은 채우기 전 프로그램보다 '구체적인' 분석 결과가 나올 것
 - 후보 나열도, 부품 끼워보기도 빈칸 채우기로만 이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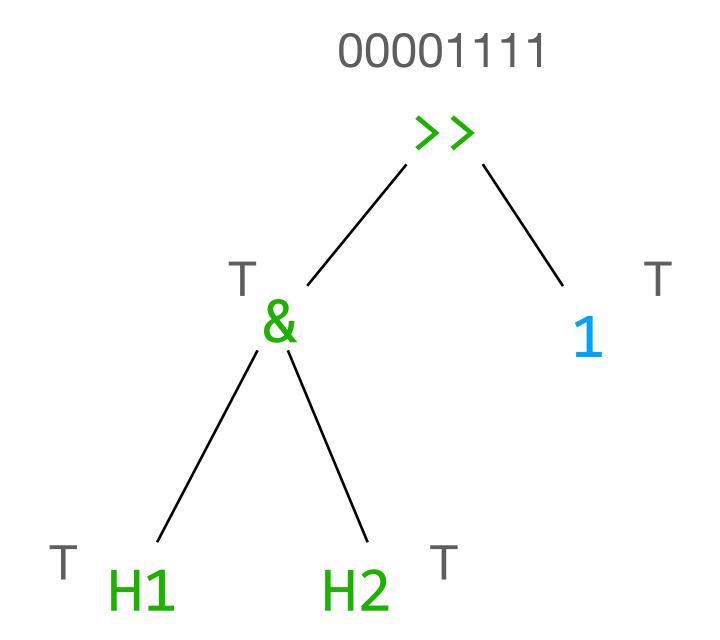
```
([]&[])>>[]
([]&[])>>[1]
([]&[x])>>[1]
```

• 이전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?

-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01111
- 아직 정보가 없는 상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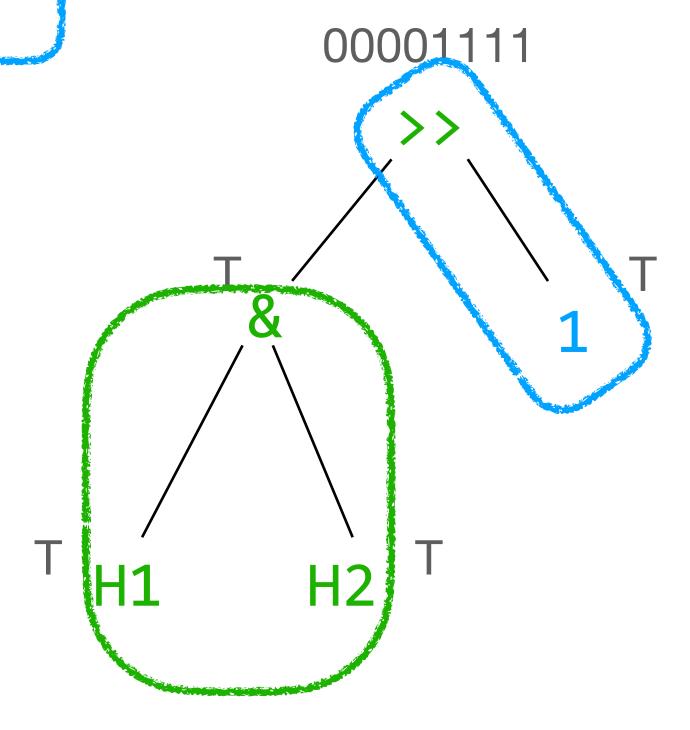
-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01111
- 빈칸 H3 <- 부품 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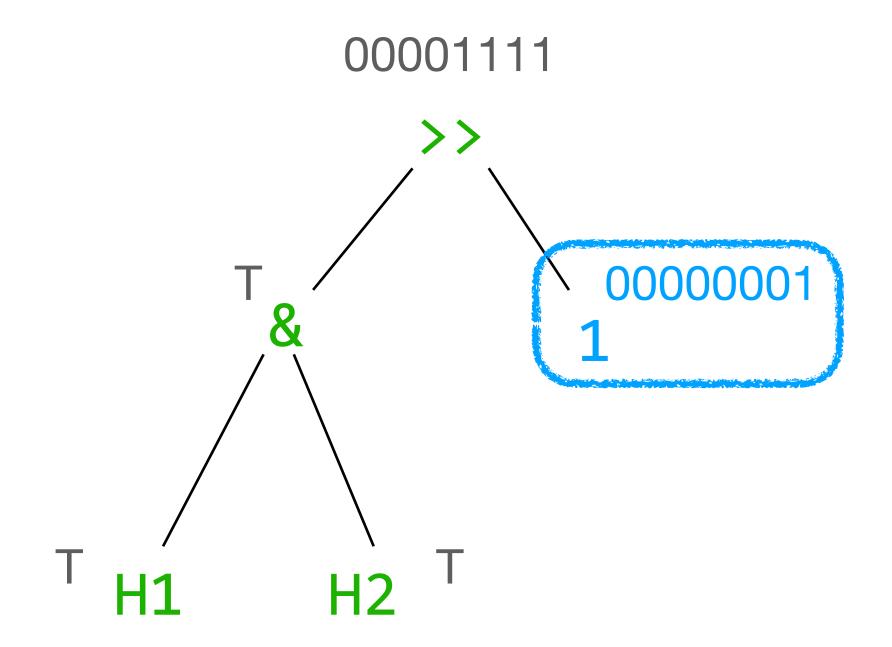
•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1111

• 다시 정방향 분석을 해야하는 곳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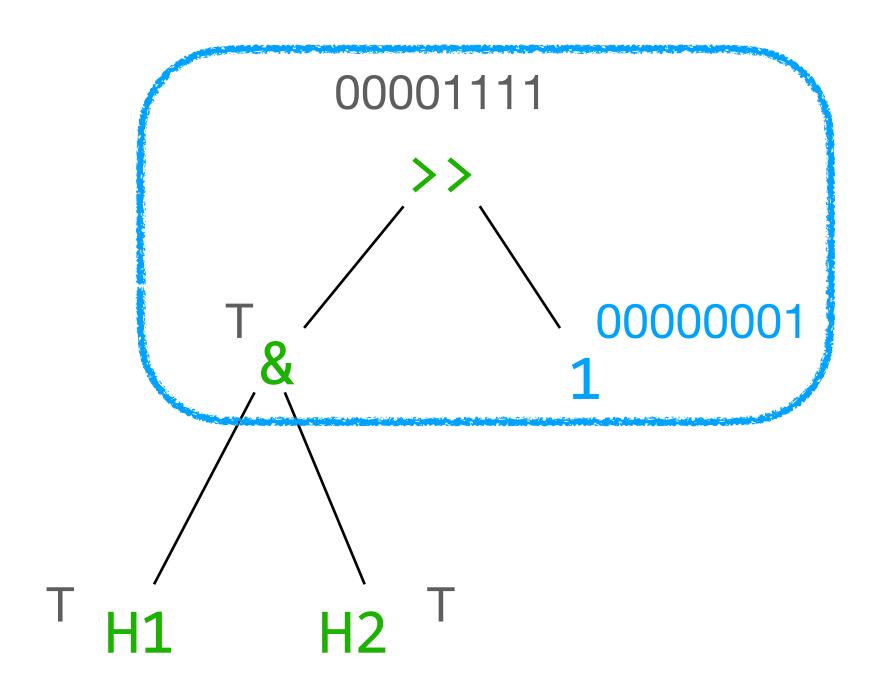
• 재활용으로 시간 아낀 곳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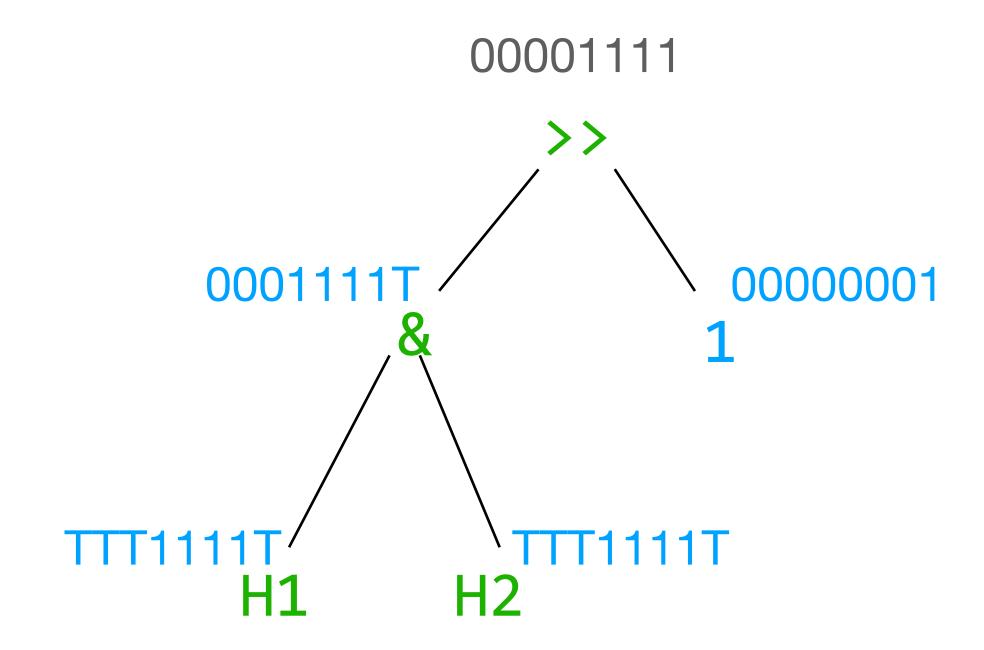
-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1111
- 재활용 정방향 분석 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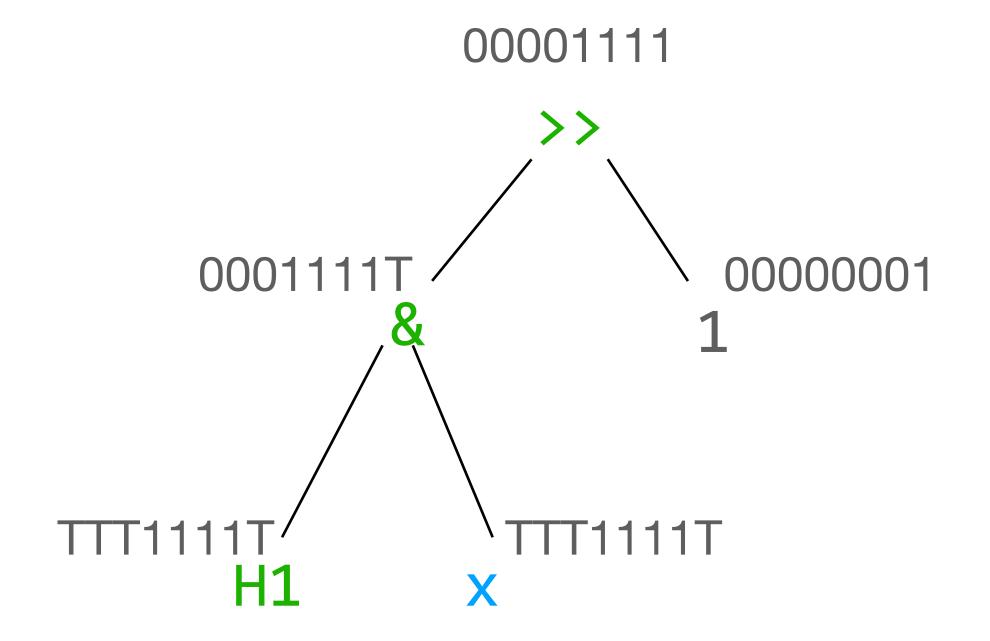
-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1111
- 역방향 분석을 시작해야하는 지점: 마지막 업데이트 된 곳을 포함하는 가장 낮은 위치 = >>



-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1111
- 역방향 분석 완료 아직 싹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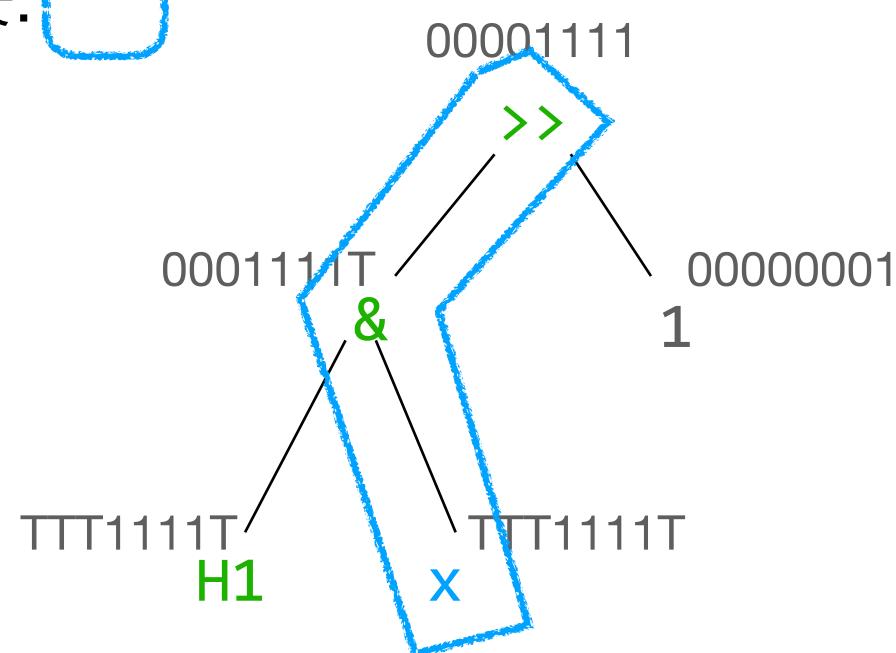


-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1111
- 빈칸 H2 <- 부품 x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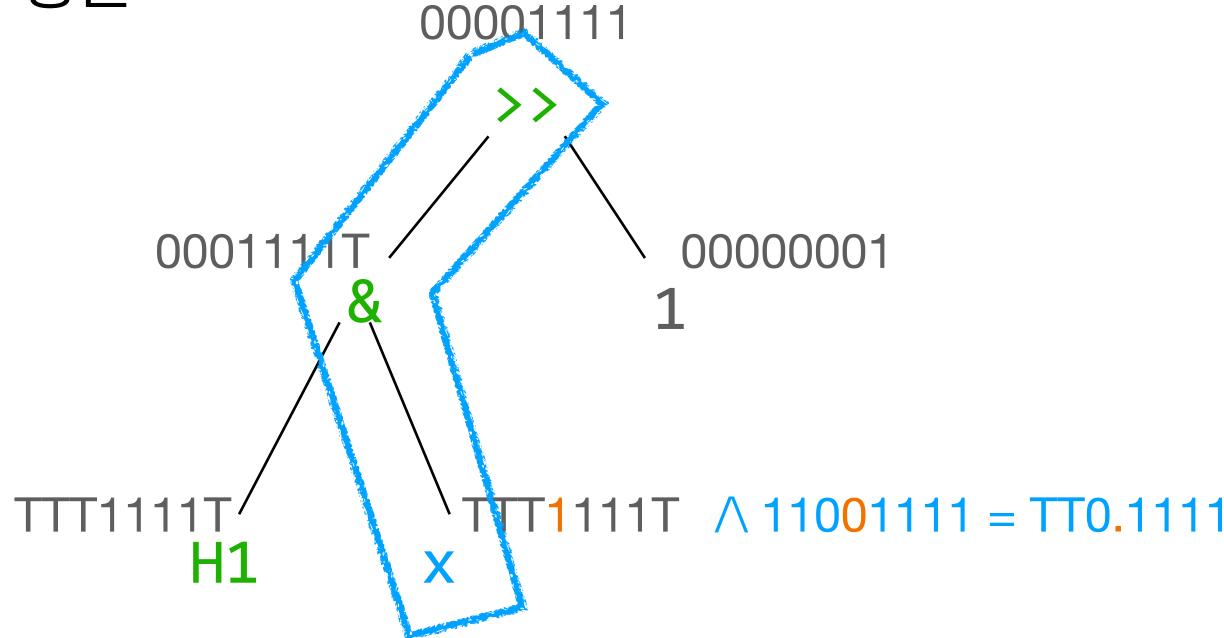
•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1111

• 다시 정방향 분석을 해야하는 곳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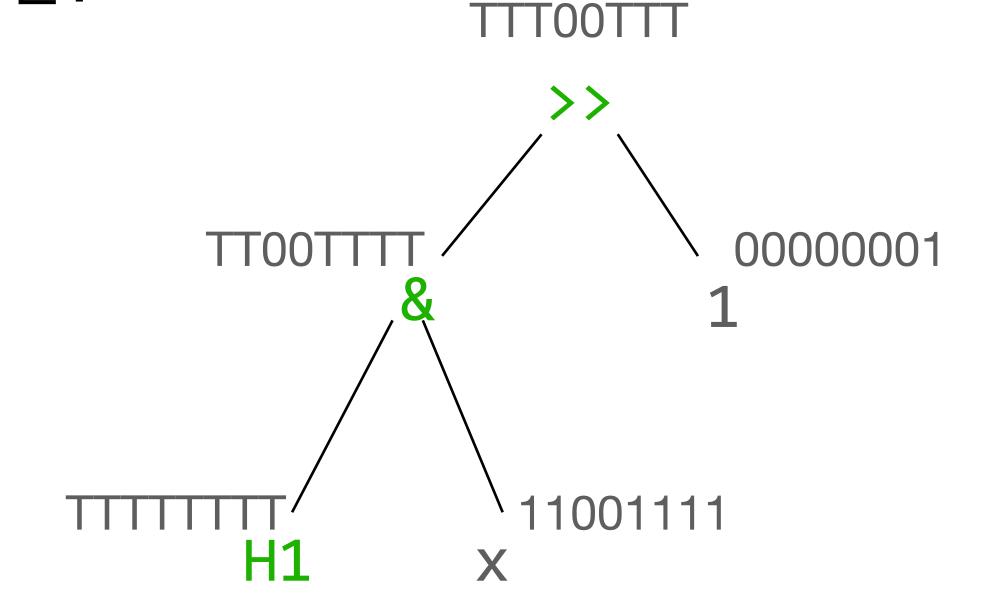


•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11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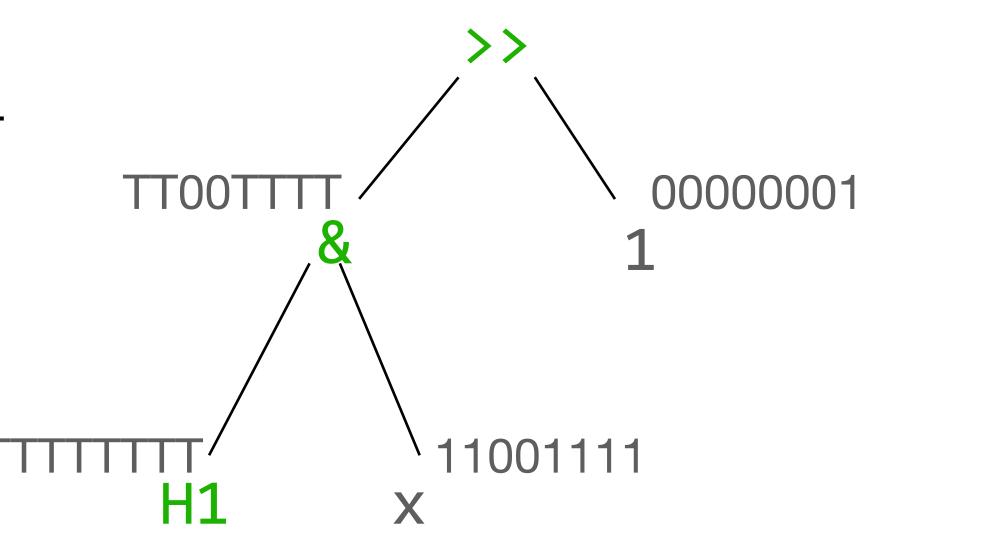
• x 정방향 분석 결과가 앞 결과와 충돌 => 싹수 없음



-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1111
- 무작정 다시 전체 분석을 했다면?
 - 전체 정방향 분석 후



- 입력: b_11001111 / 출력: b_0001111
- 무작정 다시 전체 분석을 했다면?
 - 전체 정방향 분석 후 역방향 분석 중 싹수 없음 판단



TTT00TTT \land 00001111 = 0000.111

재활용 분석 방법

- 재활용 분석 입력: 빈칸에 어떤 식을 끼워넣은 프로그램 P[E] 와 P[]에 대한 분석 결과 S
- 분석 방법
 - 정방향: P[E]에서 []에 직접 영향을 받는 (= 나무 구조에서 부모-자식 관계에 있는)
 노드만 새로 분석하고 나머지는 S에 매달린 값을 유지
 - 역방향: 정방향 분석에서 업데이트 된 가장 높은 위치를 포함하는 가장 낮은 노드부터 분석 시작

재활용 분석의 효과

problem	부품 크기	부품 갯수	분석없이	재활용 없이 분석		재활용 분석		
			총 시간	총 시간	분석 시간	총 시간	분석 시간	분석 시간 비율
hd-07-d5	1	4	0.11	3.93	3.81	2.42	2.30	60.5%
hd-08-d5	1	4	0.11	3.92	3.80	2.39	2.27	59.9%
hd-09-d0	1	7	1.84	22.64	21.20	10.34	8.93	42.1%
hd-09-d0	2	7	1.85	22.63	21.16	10.26	8.84	41.8%
hd-09-d1	1	36	281.12	1963.61	1686.43	925.23	653.15	38.7%
hd-09-d1	2	36	281.79	1965.85	1687.70	928.53	655.35	38.8%
hd-09-d1	3	36	4.01	8.28	5.47	8.32	5.50	100.6%
hd-09-d1	4	36	3.99	8.32	5.49	8.33	5.51	100.5%

^{*} hacker's delight 문제, 분석 포함 총 1초 이상 걸리고 합성에 성공한 문제만

재활용 분석의 효과

• 분석 시도할 후보가 많을 때 시간 절약 효과는 확실

- 메모리 효율 개선 필요
 - 후보 하나당 요약값 테이블 하나
 - 후보가 수십만개 이상 쌓이면 Out of Memory 발생

균형점을 찾아야

- 합성이 잘 되려면
 - 부품을 팍팍 키워야

-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려면
 - 후보에 구멍이 많아야 -> 후보부터 키워야

• 희망: 아주 큰 프로그램을 합성할 때는 후보와 부품이 모두 커질 것